신세계도 '대한통운 인수전' 가세

"온라인 쇼핑몰과 시너지 효과…입찰의향서 내겠다"
금호터미널 놓고 롯데와 경합…지역 유통계 지각변동

금호터미널의 모기업인 대한통운 인수전에 신세계가 뛰어들기로 결정하면서 유통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의 대결에 유통업계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누가 대한통운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광주지역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신세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세계는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대한통운 인수전 참여를 결정하고 접수 마감일인 4일 입찰의향서(LOI)를 낼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대한통운의 물류망이 신세계의 온라인 쇼핑몰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M&A업계는 유통 공룡인 신세계가 대한통운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유휴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신세계가 전개하는 유통사업은 부동산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때문에 국내 출점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통운이 보유한 전국 요지의 부동산을 신세계가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신세계와 유통 라이벌인 롯데그룹도 "대한통운 인수전에 반드시 참여한다"며 인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 주력이 유통분야이기 때문에 물류회사를 인수하면 상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한통운의 사업영역 중 어느 분야가 롯데그룹에 도움이 되는지, 적정 인수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유통업계는 신세계와 롯데의 경합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금호터미널과 임차계약을 맺고 있어 만약 대한통운을 롯데가 인수할 경우 광주 유통시장은 고스란히 롯데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밖에 포스코도 인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와 대한통운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은 삼성그룹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편 매각 주간사인 노무라증권과 산업은행 M&A실은 4일 입찰의향서(LOI) 접수하고 5일 예비입찰을 한다. 또 인수 후보자 중에서 5월13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같은달 27일 본계약을 맺은 뒤 6월30일 최종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매각대상 지분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18.98%와 18.62% 등 총 37.6%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고향주부모임 정기총회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모임(이하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회장 강남희)는 지난 2일 농협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회장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제7대 회장에 강남희 목포지회장을 단독 추대했다.

농협 주부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는 이날 총회에서 '새로운 농업·농촌 운동' 추진에 앞장서고 녹색·문화 운동, 건강한 식문화 개선 운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이날 사랑의 저금통 100여개를 모아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을 고교생 4명에게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배춧값 또 뜀박질
포기당 5400원

주춤했던 배춧값이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3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비와 기온 하강으로 산지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기준으로 포기당 5400원에 팔려 지난주보다 1100원(25.6%) 올랐다.

무도 산지 출하량이 감소해 전주보다 470원(31.8%) 올라 1개에 1950원에 팔렸다. 양파(3kg)와 감자(1kg)는 출하량이 안정되면서 각각 6000원(전주대비 10.4% 하락)과 4500원(전주 동일)에 가격이 형성됐다.

상승세였던 돼지고기 삼겹살은 지난주보다 490원 내려 100g에 2000원에 판매됐고, 한우 갈비·등심·양지는 지난주와 값이 같았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지펠 세라믹 오븐' 출시

삼성전자는 3일 원적외선 세라믹 조리실을 갖춘 지펠 세라믹 오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오븐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한다.

이 제품은 세라믹 히터에서 나오는 긴 파장의 원적외선과 전자레인지와 같은 짧은 파장의 마이크로웨이브, 음식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주는 열풍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스팀 기능까지 갖췄다.

또 다음 단계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음성 가이드 기능과 160가지 자동메뉴, 음식의 칼로리를 표시해주는 스마트 요리 기능 등도 구비했다.

오븐 내부는 세라믹 코팅 처리해 그을음과 변색을 방지했고, 스팀 청소기능으로 기름때와 생선 냄새까지 말끔히 제거한다.

지펠 세라믹 오븐은 총 9종으로 출고가는 43만원에서 75만원대다. /박정욱기자 jwpark@

5만원권 유통총액 1만원권 추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의 총액이 '1만원권'의 유통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5만원권 유통잔액은 20조1076억원으로 1만원권 유통잔액(20조761억원)을 넘어섰다. 5만원권이 발행된 뒤 1년9개월만이다.

이에따라 5만원권의 유통비중은 47.2%에 달한 반면 1만원권은 47.1%로 줄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 총액은 42조6269억원으로 ▲5만원권 20조1076억원(47.2%) ▲1만원권 20조761억원(47.1%) ▲5천원권 1조1107억원(2.6%) ▲1천원권 1조3191억원(3.1%) 등이다.

5만원권 유통잔액이 늘어난데 대해 한은은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커진데다 휴대 및 대금결제의 편리성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계열사 11개월간 100개 증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개월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을 받는 5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무려 100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약을 받는 기업집단(51개) 소속 계열사는 1364개로 지난해 4월 1264개(53개 기업집단. 이중 2개 집단은 중간에 대상에서 빠짐)에 비해 100개(8%) 늘었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롯데 계열사가 16개(60→76)나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SK 14개(75→89), 포스코 12개(48→60), GS(69→78)와 CJ(54→63) 각 9개, 웅진 8개(24→32), 동양 7개(24→31)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자산총액 1위인 삼성은 계열사가 71개로 작년 4월에 비해 4개 늘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는 9개(45→36개) 줄어들었으며, 두산 4개(29→25개), 현대백화점 3개(29→26개) 줄었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또 파업 가나

노조, 조합원 해고 비난…전국 집회 재추진 예고

강운태 광주시장의 중재로 대화에 나섰던 금호고속과 금호고속 새 노조가 협상 한 달 만에 조합원 해고문제로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는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고속은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성실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호고속 노사는 지난 1월 28일 광주시장의 중재로 성실 협상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며 "그동안 3차례 실무접촉을 거쳐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2일 조합원 3명을 해고하고, 1명은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실무협의를 통해 차이를 좁히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사측은 겉으로 대화에 임했을 뿐, 다른 한편에서는 중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며 "시장과의 합의가 당시의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금호고속지회는 "사측이 운수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한다면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중단했던 전국 집회를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사측은 "노사 합의문에 명기된 것처럼 '법적 분쟁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합의했을 뿐, 단체교섭 관련 대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며 "사규에 의한 징계 또한 인사의 고유권한으로 법적 분쟁 논의 대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합의문에 근거해 업무방해, 무단침입, 폭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 법적분쟁과 관련된 합의를 성실히 진행해야 하고, 이를 빌미로 운행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엄포"라며 "일정기간 검증을 거쳐 상호 고소·고발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해 평화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기업 자금사정 악화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2월과 3월 자금사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53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광주·전남지역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2월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88로 나타났다.

3월 자금사정 전망BSI(88→86)는 비제조업(83→84)이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93→89)은 4포인트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

▲ 코스피지수	1,970.66 (+42.42)
▲ 코스닥지수	510.94 (+7.48)
▲ 금리 (국고채 3년)	3.93% (+0.09)
▼ 원·달러 환율	1,119.90원 (-8.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8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0타경 35617	1	광산구산정동 939 1동 11층1120호 60㎡	아파트	50,000,000 50,000,000	임차인있음
2010타경 37286	1	북구 두암동 59-20 미라보아파트 103동 5층 506호 59.925㎡	아파트	64,000,000 64,000,000	
2010타경 38142	1	서구 풍암동 1057 남양.현대아파트 102동 20층2001호 59.95㎡	아파트	90,000,000 90,000,000	임차인있음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0타경 26682	1	서구 쌍촌동 525-1 1층 101호 44.36㎡	다세대	47,000,000 47,000,000	임차인있음
[대지/임야/전답]					
2010타경 34294	1	화순군 남면 용리 135 400㎡	대	6,000,000 6,000,000	타인소유건물매각제외
2010타경 35440	1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3-2 1779㎡	전	160,205,000 160,205,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684 3752㎡	전		
2010타경 36948	1	동구 선교동 233 159평	대	198,828,000 198,828,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0타경 37101	1	나주시 운곡동 68 332㎡	대	31,845,500 31,845,50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
		동소 68 66㎡ 제시외 창고 등 61.2㎡	단독주택		
2010타경 37347	1	화순군 이서면 갈두리 산53 11572㎡	임야	30,087,200 30,087,200	
2010타경 37774	1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700-1 2399㎡[공유자정은경지분9분의1전부]	답	2,585,632 2,585,632	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0타경 32175	1	서구 양동 269-12 195㎡	대	603,038,540 603,038,5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동소 269-12 지하실80.24㎡[다방]1층129.765㎡[주차장] 2층129.765㎡[의원] 3층129.765㎡[의원] 4층129.765㎡[사무실] 5층129.765㎡[사무실] 제시외 주택 등 72.8㎡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1. 3. 18.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1. 3. 25.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1. 3.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편입수학,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매월 1일